



신도시에서 나라꽃 무궁화 볼 기회 늘어난다

- 오는 25일 '산림청-한국토지공사' 간 협약체결 -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무궁화를 테마로 하는 도시공원과 꽃길이 들어서고 무궁화를 도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나라꽃 무궁화를 친근하고 사랑받는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광수 산림청장과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오는 25일 한국토지공사 본사(경기도 분당)에서 '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확산과 신도시내 무궁화 공원 및 꽃길 등 조성사업'에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은 무궁화가 예로부터 우리민족에게 사랑받고 국가를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어왔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고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실점에서 국민 화합을 위한 범국민적 무궁화 운동 확산과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가브랜드로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데서 출발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무궁화 동산, 꽃길 조성 등 보급 확대', '전문 인력 양성, 품종 개발 등 무궁화 생산기반 구축', '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문화운동의 공동 수행'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토지공사는 현재 전국에서 조성 중인 15개 신도시 내에 무궁화 테마공원과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도시 미관 향상은 물론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랜드마크화, 문화콘텐츠 개발 등으로 국민들에게 무궁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지나해부터 추진해온 '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칩', '가시박' 등 덩굴류 뿌리 뽑는다

산림청, 9월 한 달을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으로 설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주요도로변과 산림에 급속히 번지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칩, 가시박 등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해 9월 한 달을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인력을 집중 투입해 제거작업에 나선다.

덩굴류는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심지어 나무를 고사시키며 결국에는 숲까지 망가트리는 식물로서 칩, 환삼덩굴 등과 함께 외래종인 가시박 등이 대표적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인공조림지를 중심으로 조림목의 성장을 방해하는 덩굴류를 제거해 왔으나, 최근 산림내 폐경지가 늘어나고 햇빛에 노출된 도로변의 덩굴류가 산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년부터 집중 제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덩굴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ha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조림지, 도로변 등 약 11만ha의 덩굴류가 우선 제거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제거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덩굴류 제거에 적합한 시기인 9월 한 달을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으로 설정하여 우선 시급한 주요도로변, 조림지의 덩굴을 올해 안에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전국의 숲가꾸기 기능인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과 인공조림지에서 덩굴류를 제거하게 되며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된다.

운영군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해 숲을 망치고 경관을 해치는 덩굴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생명력이 강한 덩굴류를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고 반복적인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는 덩굴류를 제거하는 방법에 맹독성 약제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인력에 의한 뿌리굴취와 기계를 사용하는 친환경 제거방법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음용 가능한 칩뿌리와 축산사료용 칩덩굴은 농가소득에도 일조하고 있다.

아태지역 조경축제, 개최식 성황

라랜트 뉴스팀, 나창호 기자_ch20n@paran.com | 기사입력 2009-09-01

2009년 9월의 첫째 날, 동아시아 10여개국의 조경인들이 인천 송도컨벤시아로 발걸음을 향했다. "2009 인천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2009 Incheon IFLA APR Congress)"가 본격적인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 것.

오후 2시 30분, 본격적인 개회식에 앞선 식전행사로서, 영남대 최신현 교수의 사회로 학생공모전의 'Tape Cutting'이 진행되었다. 자리에는 조세환 안상수 대회장과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안동만 IFLA아태지역부회장,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제해성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김성균 조직위원장, 홍광표 조직위원장, 오휘영 조경학회 고문, 양병이 조경학회 고문, 김학

범 조경학회 명예회장 등의 인사들이 커팅식에 참석하였다. 이후 학생공모전 관람과 최신현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테이프 커팅식 및 학생공모전 관람

오후 3시, (사)한국조경학회(Korean Institute Landscape Architecture)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2009 인천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오후 3시 개회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향해에 들어갔다. 주제는 ‘도시와 조경의 혼성과 융합: 미래를 향한 전략과 대응’(Hybrid & Convergence of City and Landscape Architecture: Strategies for the Future)이다. 부산대 이유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장에는 1500여명이 넘는 세계각국의 사람들의 객석을 가득메웠으며, 뜨거운 호응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홍광표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개막식의 포문을 연후, 박종성 행사위원장의 ‘현황보고와 슬로건 수상자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종성 행사위원장은 그동안의 IFLA 역사를 되짚어보고, 이번 행사의 개최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라펜트 홈페이지(www.lafent.com)를 통해 공모하였던 슬로건의 수상작 발표가 있었으며 정봉훈씨의 ‘Green Culture in the City(도시에 그리는 녹색문화)’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세환, 안상수 대화장의 인사말과 환영사, 그리고 김성균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이 각각 이어졌다. 조세환 대화장은 연단에 서서 “황폐화된 도시는 재생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경역시 도시와 국토와 분절된 조경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분야로서 녹색성장시대의 주역이다”라고 힘있게 강조하였다.

안상수 대화장은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와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그린 뉴딜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도 세계환경포럼, 세계물포럼 등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조경분야는 자연과 생물, 그리고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학문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제안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녹색 인천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성균 조직위원장은 “그동안 IFLA 총회는 지식정보 교류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다. 오늘날 조경의 경향인 신도시개발, 도시재생, 워터프론트 등 세부주제에 대한 학술발표가 준비되었으며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 아시아 조경인들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그는 본 총회를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녹색성장 시대의 핵으로서 조경은 국토 지속가능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임이 분명하다. 4대강사업 등 녹색성장에 조경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공식행사의 끝으로 안동만 IFLA아태지역 부회장의 연설이 이어졌다. 안동만 부회장은 “거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 뜻깊다. 주변에서 바라볼때 조경발전의 작기라고 본다. 인터넷 사이버스튜디오, 해외도서관 조경책 보내주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줄안다. 이러한 활동에 조경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좋은환경 창조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회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필기 합격자, 실무시험 접수 및 시험장소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조경수협회입니다.

제3회 조경수조성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를 “자격검정-합격자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또한 시험날짜와 장소 및 수검자 지침 공구목록을 확인하시어 응시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 2009년 10월 7일(수) ~ 2009년 10월 13일(화)
(입금날짜는 10월 13일까지만 유효)
- ◆ 접수방법 : 제3회, 제2회(2009년) 및 제1회(2008년) 1차 합격자는 “자격검정-온라인신청”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신 후, 응시수수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급인 경우 차량이용 여부때문에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수검표를 출력은 10월 14일부터 가능하며, 10월 31일에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967-5791~2)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20801-01-204019 (사)한국조경수협회

- ※ 응시수수료는 접수 후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만 착오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정산 후 차액을 반환함.
- ◆ 시험장소 : 산림생산기술연구소(031-540-1113)
(경기도 광릉 국립수목원 부근(약도 참고))
- ※ 2급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야 하며, 3급 응시자는 10월 31일(토) 11시(시간엄수)까지 국립산림과학원(청량리 부근) 정문으로 오시면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단, 상기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10월 13일까지 협회로 전화 등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인원을 파악하여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접수한 분에 한함.)

자격종목 및 등급	시험일자	시험 시간	응시 수수료	수검자 지침 공구목록	비고
2급	2009. 10.31(토)	오전9시 30분~	10만원	접킬(접도), 전정 가위, 장갑, 안전화 또는 작업화, 확대경(돋보기 대응), 필기도구	수검표 필히 지참 요망
3급		오후1시 30분~	7만원	접킬(접도), 장갑, 안전화 또는 작업화, 확대경(돋보기 대응), 필기도구	